

**KSC News** **성령 은사적 쇄신 소식**  
**Catholic Charismatic Renewal**

가톨릭 성령 은사적 쇄신 미주 한인 봉사 위원회 Korean Service Committee of the CCR in the Americas

March, April 2009 Edition



선종하신  
 김수환 추기경을  
 추모하며  
 주님 품에서  
 스테파노의  
 영원한  
 안식을  
 기원합니다.

**Love in Action**  
**2009 세계 성령대회**  
**International ICCRS Conference**  
**2009년 6월 1일-9일, 꽃동네**

국제 성령 쇄신 봉사회(ICCRS)가 주관하는 세계 성령 대회가 오는 6월 1일부터 9일 까지 한국 꽃동네에서 개최된다. KSC에서는 회장 박창득 몬시뇰이 참석한다. 문의는 이은경 줄리아 253)223-8775 <http://www.loveinaction.co.kr>

**The Life in the Spirit Seminar for Young Leaders**  
 Contact: KSC-Y Chairman Francis Ahn 919-225-3669

**2009 Seminar Schedule**

일자	행사	주최	문의
3/13 - 14	북가주 봉사자 워크샵	북가주 봉사회	박 소피아 408-892-6016
4/14 - 15	중북부 봉사자 워크샵	중북부봉사회	김 영일 847-436-0003
4/16 - 19	중북부성령 안의 삶 세미나	중북부봉사회	정하상 본당 847-699-6334
4/24 - 26	전국 봉사자 세미나, 뉴저지	KSC	이 은경 줄리아 253-223-8775
5/22 - 25	The Life in the Spirit Seminar for Young Leaders	KSC-Y	Francis Ahn 919-225-3669
5/24 - 25	제 2 회 동중부 성령 대회	동중부 봉사회	443-717-0886
5/22 - 25	11 차 성령 안의 삶 세미나	콜로라도 봉사회	김 안젤라 719-200-5444
5/22 - 25	16 차 청년 성령 안의 삶 세미나	동북부 봉사회	이 테레사 201-947-4717
5/28 - 31	50 차 성령 안의 삶 세미나	동북부 봉사회	이 테레사 201-947-4717
7/18 - 19	14 차 동북부 성령 대회	동북부 봉사회	이 테레사 201-947-4717
7/26 - 29	동남부 성장 세미나	동남부 봉사회	안 엘리사벳 704-975-5969
7/30 - 8/1	1 차 청장년 성장 세미나	콜로라도 봉사회	지 요셉 720-939-8046
8/20 - 23	타코마 성령 안의 삶 세미나	타코마 기도회	이은경줄리아 253-223-8775
8/1	동북부 청년 성령 대회	동북부 봉사회	이 테레사 201-947-4717
10/18 - 21	동중부 성령 안의 삶 세미나	동중부 봉사회	443-717-0886
10/25 - 28	51 차 성령 안의 삶 세미나	동북부 봉사회	이 테레사 201-947-4717
11/27 - 29	10 차 청년 성장 세미나	동북부 봉사회	이 테레사 201-947-4717

미주 한인 천주교 성령가족을 위한 격 월간지  
**130 67th Ave Ct E, Fife, WA 98424**  
**Tel.Fax. (253)663-4407**  
 news@kscusa.org <http://kscusa.org>

# 너의 머리 위에 불꽃을

눈꽃 속에 뜨겁게 활짝 핀 성령의 불꽃이었다. 캐나다 온타리오 지역 성령 봉사자 워크샵 (토론토 성 안드레아 성당) 과 곧 이어 열린 성령 안의 삶 세미나 (해밀톤 성 유대철 성당) 에서였다. 토론토 성 안드레아 성당에는 폭설 경보에도 불구하고 1월 26일부터 28일까지 사흘 저녁 동안 50여명의 기도회 봉사자들이 모여 워크샵을 통해 각기 준비한 간증을 나누며 성령과 함께 은혜의 시간을 가졌다. (세번째 사진)

봉사자들은 워크샵에서 받은 은혜를 가득 안고, 이어 29일부터 2월 1일까지 해밀톤 성 유대철 성당 사상 최초로 열린 성령 안의 삶 세미나에 참여해 KSC와 함께 봉사했다



## 전국 봉사자 세미나

4월 24일 뉴악 윈드햄 가든 호텔

2009 전국 봉사자 세미나가 뉴저지주 뉴악 공항 부근 윈드햄 가든 호텔에서 열린다.

매년, 전국 각 지역 기도회 봉사자들이 모이는 전국 세미나는 봉사자들의 교육 훈련뿐만 아니라 “만남으로써 성령 봉사자들의 정보 교환과 친교를 이루기 위한” 마당의 역할을 하고 있다.

KSC는 기도회 봉사자를 비롯 성령 쇄신에 관심이 있는 모든 교우들의 참여를 바라고 있다.

## 치유와 은총의 시간

박창득 몬시놀, 풀비오 신부 각 분당 순방

구마 사제로 잘 알려진 이탈리아의 풀비오 신부가 미주 한인 교우들을 위해 미국내 각 한인 분당을 방문하여 치유와 은총의 시간을 갖었다.

풀비오 신부는 지도 신부인 KSC 회장 박창득 몬시놀과 ‘평화의 모후’ 봉사자들과 함께 메릴랜드 워싱턴 성당, 뉴저지의 3개 분당 및 뉴욕, 토론토, LA 한인 분당을 3월 3일부터 15일 까지 순방했다.

각 기도회 회원들의 이메일 주소를 [kscnews@kscusa.org](mailto:kscnews@kscusa.org) 로 보내 주십시오.  
KSC News를 이메일로 보내 드리겠습니다.

## 악은 너를 보호하고 싶어하는 네 마음

### 과달루페 성지 순례를 마치고

민 라파엘라, 달라스 본당

Mexico City는 제가 사는 달라스에서 너무나 가까운 곳이었습니다. 그렇게 가까운 곳에서 어머니가 저를 지켜주시며 기다리고 계신 지 몰랐습니다. 각 지역에서 오신 분들과의 첫 나눔에서 어머니를 뵙는다는 설레임이라는 말을 듣고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별다른 마음의 준비도 없이 그냥 따라나선 길에서 뜻하지 않은 보물을 거저 얻을 것 같아서, 일정을 기다리는 마음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순례 첫날, 과달루페 대 성당을 찾는 순례자들 사이에 끼어서 열심히 걸었습니다. 너무도 가난한 모습의 순례자들, 우리 같은 외국인이 아니라, 멕시코 사람들, 갓난 아기부터 노인까지 다양한 순례자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어머니를 만나기 위한 그들의 행렬은 습관화된 편안함을 당연히 받아들이는 제 자신을 마구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럴수가...” 감탄과 놀라움으로 저의 첫 순례 길은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 전부터 전해들은 과달루페 어머니에 대한 지식을 머리에 가득 담고 그 지식을 눈으로 확인하려는 마음이 더 컸습니다.

대성당에 도착했을 때, 성전에서는 과달루페 성모님 축일 미사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제대 뒤에 모셔진 어머니의 영정 사진과 스무 명에 가까운 신부님들과 어린 복사들의 모습이 마치 천상에서의 찬미의 시간이 이런 것이 아닐까 느껴졌습니다. 그런 벽찬 마음과 함께 대성당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눈물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전해들은 지식을 눈으로 확인하려고 달려든 제 모습이 부끄러워졌고, 너무도 소중한 것들을 모르고 지나온 시간들을 반성하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옆에 계신 부제님께서 “어머님께 말을 걸어”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니의 영정 사진을 올려다 보며 눈물과 함께, “어머니 저 왔어요. 저는 어머니를 너무 몰랐어요.” 라는 말을 반복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순간, 포근한 느낌과 함께 제 마음 안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있었습니다. “이제 너는 더이상 외롭지 않을 것이다” 신앙 안에서 그리고 삶 안에서 자주 외로움을 느끼던 제 마음을 알고 계셨고, 이제 외롭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까지 해 주시는 성모님을 그렇게 만났습니다. 그 만남을 통해 성령님과 함께 하시는 성모님에 대한 확신을, 머리가 아닌 마음으로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성모님께서 구체적으로 제게 어떻게 다가 오시는 분이신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가난한 자들의 어머니로 오신 성모님을 그 곳 현지인들의 모습에서 만났습니다. 태양 신, 달의 신 등 여러 신들을 우상 숭배하며 살아 온 그들에

게 오셔서 발현 후 7년 만에 800만 명의 멕시코인들을 그리스도께로 이끄신 성모님의 뜻을 영정 사진에서도 만났습니다. 마지막 날 미사를 드리기 위해 대성당을 들어섰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성모님의 발 아래 부분만 두드러지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양쪽에 빨이 달린 괴물의 형상이었습니다. 두 눈에는 노란 불 빛이 타고 있는 것처럼 보였고, 그 부분이 성모님의 발이라는 것을 알고 다시 보았지만, 여전히 그 괴물의 형상은 제 눈에서 흐려지질 않았습니다. 제 마음 안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있었습니다. “이제 내가 너의 마음 안에 있는 모든 악을 짓밟아 버리겠다. 너의 마음 안에 있는 악은 바로 너를 보호하고 싶어하는 너의 그 마음이다.”

바로 그거였습니다.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제 자신의 그런 모습이 저를 힘들게 한다는 것을... 그러나, 제 의지만으로는 벗어나지 못해서 그런 부분이 닦쳐오면 좌절하고 넘어져 버리곤 하는 저를 성모님께서도 알고 계셨습니다. 갑자기 마음 안에 새로운 기운이 느껴지며 용기가 생겨나는 것 같았습니다. 성모님께서 계속 저에게 속삭여 주셨습니다. “알았지? 알았지? 할 수 있어. 가서 시키는 대로 해라. 알았지?” 마치 어린 시절 엄마가 저를 다독겨주던 그 느낌을 받았습니다. 영정 사진 속의 성모 어머니로서가 아니라, 저를 낳아주신 친 엄마처럼 다가오셨습니다. 이런 어머니를 뒤로 하고 떠나오기가 정말 아쉬웠습니다. 공항으로 향해가는 동안 성모님이 너무 보고싶고 못 다한 말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다시 가서 한번만 더 뵙고 오고 싶다는 마음을 달래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저를 외롭지 않게 해 주시고, 제가 할 수 있다고 용기를 주신 성모님의 손길이 제 마음 안에 깊이 들어 있다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그 확신으로 위로와 용기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과달루페 성모님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은 마음도 얻게 되었습니다.

이번 순례를 통해, 성모님께서 제 삶에 구체적으로 다가와 계셨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하느님의 섭리에 찬미를 드리며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 “네 안에 숨어 있는 악의 세력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워크샵을 마치고...

김 헤레나, 달라스 본당

제가 처음갔었던 성령세미나에서 저는 주님께 드리는 찬양을 제대로 소리내어 하질 못했었습니다. 처음엔 어색함에 어쩔 바를 몰라서였고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날 무렵에는 주체할 수 없이 흐르는 눈물로 목이메이고 무너져 내렸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때 전 저도 모르게 하나 둘씩 제 안에 깊이 박혀 있던 상처들을 하나 하나 꺼내 일일이 어루만져 주시는 주님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때까지도 신령한 기도가 어색하고 낯설었던 저는 기도회에 꾸준히 가질 못했습니다. 아마 그때까지도 성령님을 완전히 믿지 못하고 의심했던 것 같습니다. 다만 혼자서 조용히 주님께 무언가를 간구하는 기도를 할 뿐이었습니다. 그 무언가는... 기도회를 나가진 않더라도 주님께 더 가까이 가고 싶은 마음을 주님께서 알아 주시길, 그리고 또 한가지 남편 또한 나와 같이 지고 있을 무거운 짐을 주님께 내려 놓을 수 있게 해달라는 기도였습니다.

두번째 성령 세미나에서 전 하느님께 엄청난 선물들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게도 어렵던 신령한 기도가 너무나 평화로운 주님과의 대화로 저에게 큰 선물로 왔던 것입니다.

또 한가지는 이웃을 내몸같이 사랑하라는 주님의 말씀이 마치 제 안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웃의 아픔이 저에게 그대로 전해지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말을 하지 않아도, 눈빛만 봐도 그 형제님이 그 자매님이 무엇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지 무엇 때문에 힘들어 하는지 알 것 같은 태어나서 처음 느껴보는 그런 느낌...그것이 바로 주님 안에서 진정 주님이 가르쳐 주신 사랑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제서야 전 드디어 성령님을 제안에 온전히 모실수 있게 되었고 그 이후로 성령으로 충만한 기도회가, 기도회식구들 하나하나가 너무나도 소중하고 감사합니다.

이제는 이웃을 위해 진심 어린 마음으로 기도할 줄도 알게 되었습니다. 나를 위한 기도보다는 남을 위해 하는 기도가 얼마나 값진 것이라는 것 또한 하느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렇게 하루 하루 기쁨 속에 살다가 갑자기 커다란 벽에 부딪치는 것 같은 느낌을 받게되었던 성령세미나 워크샵.

왜 그런 마음이 드는지 혼란스럽고 당황스럽기만 했던 성령세미나

워크샵은 저에게 잘 가던 길을 가로막는 커다란 바위덩이 같기만 했습니다. 왜 나와 주님과 나눈을 여러 사람들과 함께 나눠야하는건지... 당장 다음날 까지 써오라는 부제님의 말씀에 다 들어 가는 소리로 ‘네...’ 라고는 했지만 막상 집에 가서 쓰려고 하니 써지지않았습니다. 내가 너무 어렵게 생각하는 걸까? 하는의문도 생겼지만 가장 큰 원인은 날 잘 모르는 사람들 앞에서 나의 힘들었던 얘기를, 기억하고 싶지 않은 일들을 다시 꺼내 들춰내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분명히 앞에 나가서 얘기도 다 하지못하고 울고 말텐데...하는 괜한 걱정이 섞인 마음 뿐이었습니다.

다음 날 뒷 자리에 자신없게 앉아 있던 저는 여러 형제님들과 자매님들의 체험담에 마냥 울고만 있었습니다. 마치 그 이야기 속의 주인공이 나인 것 같은 착각이 들만큼 감정이 몰입되서 너무나도 가슴 아프고 너무도 이해가 가고...눈이 퉁퉁 붓도록 울고난 저는 마치 원점으로 돌아간 것 같은. 지금 성령 세미나를 처음 하고있는 사람처럼 새로웠고 여러분들의 용기가 너무도 부럽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분들은 우리 모두를 형제요 자매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용기도 생기신 것이라는 걸 새삼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또 한번 저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성령님을 제안에 모시고 무엇도 두려울 것이 없어야할 제가 제안에 숨어 있는 악의 세력을 이겨내지 못하고 두려움에 떨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저 주님께 맡기면 될 것을... 그렇게 주님께서서는 나눔의 신비를 통해 저에게 또 한가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내 안에서 두려워하지마라. 용기를 갖어라”하시는 주님 말씀이 지금도 귓가에 들리는것 같습니다.

저를 치유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주님과 함께 하기에 이제는 힘들 때 주님께 의지할 줄 알게 되었고 저의 부족함을 늘 채워 주시는 주님이심을 알기에 힘과 용기가 생겨나는 것 같습니다. 저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주님이심을 알기에 주님을 닮아 사랑하며 살고 싶습니다.

